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가 지각하는 관계의 질과 의사소통의 일치정도에 근거한 관계유형*

정 순 들⁺

(이화여자대학교)

박 현 주

(이화여자대학교)

오 보 략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가 서로에 대해 지각하는 '관계'의 차이, 유형, 특성 등을 파악해 보고, 서로의 관계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며느리와 시부모 138쌍이다. 연구결과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는 외국인 며느리에 비해 관계를 더 좋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쌍의 지각된 일치도에 근거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각 관계유형(군집)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부모와 며느리의 주요 특성을 이용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부모의 높은 문화적 유능감이 서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부모와 관계가 좋은 며느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부모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경우 시부모의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시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경우 며느리의 결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외국인 며느리, 시부모, 의사소통, 관계만족도, 관계유형, 군집분석, 문화적 유능감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27-B00446).

+ 주저자

1. 서론

최근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에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면서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였던 한국사회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유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가족관계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와 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관계가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이다.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으로 서로 문화가 다른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가 만나 가족관계를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결혼은 부부관계의 형성뿐만 아니라 시부모가 며느리를 얻게 되는 과정이며(김민정, 2007),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형성은 부계적이고 젠더 이데올로기가 요구되는 일종의 과정이기도 하다(Rittenour and Soliz, 2009). 따라서 성인 남녀의 결혼은 확대가족으로 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가족과의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영향을 받게 된다(Kim, 1996).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있어 실제 딸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고 가족 내 부양의 책임을 맡게 되므로(Merril, 1993; Peter-Davis, Moss and Pruchno, 1999), 이들은 서로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가 된다. 특히, 자녀의 결혼 후에도 부모와 성인자녀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부양의 의무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며느리의 역할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이러한 경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국 가정과 달리 다문화 가정에서는 시부모가 외국인 며느리에게 한국의 문화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을 전달하여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김이선, 2007; Roer-Strier and Ezra, 2006), 전통적인 관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는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시부모-며느리 관계와는 서로에게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관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고부관계를 통해 주로 다루어져 왔다. 국내외의 연구를 살펴 보면, 고부관계는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주며(Rittenour and Soliz, 2009), 부모자녀 관계, 손자녀 관계 등 다른 가족관계에도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족 전체의 안녕과 관련된 중요한 가족관계로 보고되고 있다(성명옥·이혜자, 2002; 이혜자, 2003; 송지은·Marks, 2006; 박소영·박태영, 2008; Bryant, Conger and Meehan, 2001; Turner, Young, and Black, 2006). 고부관계는 주로 갈등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이정연, 2002; 이혜경, 2005;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성, 2006; 김오남, 2006; 한건수, 2006; 홍달아기·채옥희, 2006; Luke, 2003; Rittenour and Soliz, 2009), 이에 반해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들(박정숙·박옥임·김진희, 2007; 김석란, 2008)도 있다.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과 그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남편과의 부부관계, 어린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거나 주로 외국인 며느리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가족관계에 주목하고 있을 뿐이다.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독립된 주제로 보다는 가족관계의 일환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이혜경, 2005; 김오남, 2006; 한건수, 2006; 홍달아기·채옥희, 2006; Luke, 2003). 최근 시부모의 입장에서 연구하려는 시도들이 학위논문(이혜경, 2009; 조한숙, 2009)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이들 연구들 역시 관계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어느 한쪽의 응답만으로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관계를 분석하고 있어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들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에 불충분하며 잘못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천영희·고재홍, 2005; Tein, Roosa, and Michael, 1994; Aquilino, 1999). 이 때문에 최근의 세대관계 연구는 연구 대상 각각의 관점 비교를 통한 정보수집이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한다(Aquilino, 1999). 특히 한 가족 내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게 되는 상황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집단에서 각각 그들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는 양측의 관점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부모-외국인며느리 쌍을 대상으로 하여 관계에 대한 서로 간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관계를 특정유형들로 분류한 후, 시부모와 며느리의 주요 특성을 통해 각 관계 유형별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 가정의 가족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간의 관계 향상 및 갈등 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가 지각하는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은 서로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외국인 며느리의 지각된 일치도에 근거한 관계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며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가? 셋째,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외국인 며느리 간의 관계유형은 각 집단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2. 선행연구고찰

1)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 관계의 질과 의사소통

관계란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행위의 총체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변수로는 관계의 질과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 먼저 '관계의 질'은 주로 관계의 경험을 공유하는 두 사람 사이의 가까운 정도를 나타낸다(Parker and Asher, 1993). 관계의 질은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한 정도나 애정(조병은·신화용, 1992; White and Rodgers, 1997; Rastogi and Wampler, 1999), 갈등이나 긴장정도(Clarke, Preston, Raskin, and Bengston, 1999), 혹은 관계에 대한 만족도(Umberson, 1992) 등과 같이 다양한 개념으로 측정되어 왔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와 같은 세대관계 연구에서 관계의 질은 노부모의 복지감이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며(Mancini and Blieszer, 1989), 세대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주관적인 측면으로 다루어져

왔다(송현애·이정덕, 1995; 송지은·Marks, 2006; Ward, 1985; Umberson, 1992; Peters-Davis et al., 1999). 노부모 뿐 아니라 성인자녀의 입장에서든 관계의 질은 결혼만족도와 같이 성인자녀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수, 2007; Bryant et al., 2001; Rittenour and Soliz, 2009). 관계의 질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등 이원적인 관계의 양상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긍정적인 평가는 주로 둘 사이에 친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둘 사이에 친밀성이 낮을 뿐 아니라 갈등의 소지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노부모의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평가는 건강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명옥·이혜자, 2002). 이와 같이 관계의 질은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수임에도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사이의 관계의 질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의사소통'은 서로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전달받으려는 노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대관계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 질 수 있다. 세대 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는 세대 간의 부정적인 관계나 갈등적인 상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단순히 언어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이나 몸짓, 눈 맞춤 등의 비언어적인 측면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기초로 서로 간의 의미를 전달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년기의 부모와 성인 자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세대 간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였다(Quinn, 1983). 비록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어 왔지만(Morr-Serewicz, 2008), 고부관계의 개선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고부간의 의사소통은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는 자원으로 언급되고 있다(홍숙자·유은희·전길양, 1996). 특히 서로 다른 문화와 국가의 결합을 통하여 형성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은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은 이주여성 스스로의 심리적인 문화적응을 도와주는 가장 대표적인 변인으로 강조되는 동시에(Gudykunst and Hammer, 1988), 상대방과의 교류와 공감을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관계 변수가 된다. 국내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며느리의 경우 시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을 빚기도 하며(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시부모의 경우에는 외국인 며느리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계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윤형숙, 2005; 김경신, 2006; 구차순, 2007). 그러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를 쌍으로 하여 이들이 서로의 의사소통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두 측면인 관계의 질과 의사소통 변수를 가지고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관계의 특성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를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위치와 지위를 협상하는 갈등적인 관계로 표현한다(이정연, 2002; Rittenour and

Soliz, 2009). 특히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 중 고부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비교적 많았다(이기숙, 1977; 이정연, 1990; 홍숙자 외, 1996; 최효일, 1998; 성명옥·이혜자, 2002; 이혜자, 2003; 김밀양, 2004). 이들은 가정 내에서 서로의 권한과 의무가 상충되는 지위에 놓이기 쉽고, 이 때 발생하는 고부간의 갈등과 애증의 감정이 복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갈등이나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고부갈등의 원인이나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들은 점차 수직적인 형태의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부부중심적인 가치관이 일반화된 현대사회에서 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김태현·한희선, 1990). 며느리들은 그들의 시부모에게 잠재적인 갈등을 느끼고 자신의 부모를 시부모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느끼며(Pans, 1998), 시부모가 남편만큼 가까운 관계는 아니라고 지각한다(Taylor, Chatters, and Mays, 1988).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 형성된 관계인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잠재적으로 소란스럽고 갈등적인 관계로 여겨지며, 많은 학자들은 이들의 관계를 다룰 때,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Fischer, 1983; Pans, 1998; Turner et al., 2006).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에서도 고부관계와 같은 갈등적인 특성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심각한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들에 따르면, 그들이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은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윤형숙(2005)의 연구에서 외국인 며느리들은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시부모에 대한 의존으로 시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부부 간에 심각한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생활방식의 차이가 가장 대표적인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김경신, 2006). 즉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지적된다. 가족들 간에 서로 행동하도록 기대되는 의무나 권리가 '문화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Rossi and Rossi, 1990),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가 갈등과 오해의 발생 여지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 처한 개인은 자신의 국가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 역할 사이에서 큰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Hovey, 2000), 문화적 차이는 가족 관계에서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주여성에 대한 동화(assimilation) 요구도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사이의 갈등 원인이 될 수 있다(김남국, 2005). 즉 시댁가족들이 외국인 며느리가 자신의 문화와 생활습관을 모두 버리고 한국 문화와 남편의 가족에 적응하고 따라주길 바라는 것이 가족관계에서 이주여성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며느리가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과 시부모의 문화적 유능감(cultural competence), 즉 시부모가 외국인 며느리와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힘이 서로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결과가 제시된 것은 거의 없다.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처하는 시부모와의 갈등적인 측면과는 달리 이들의 관계는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앞서 고찰한 연구들은 이주여성들의 경험에서 주로 연구되어왔을 뿐 시부모의 입장에서는 연구된 결과가 거의 없어 시부모의 경험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 최근 시부모의 입장에서 제시된 한 질적 연구의 결과(정순돌·이현주, 2009)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모든 일을 말

아서 해주거나 받아주면서 외국인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부정적 태도라기보다는 수용하는 관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외국인 며느리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도 시어머니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해경, 2009; 조한숙, 2009). 이들 연구들은 비록 관계에 대해 초점을 두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두 며느리나 시부모 어느 한쪽의 응답을 기준으로 연구된 결과여서 상호작용 속에 이루어지는 가족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와 같이 관계를 이루는 가족구성원들은 같은 사건이나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태도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Aquilino, 1999). 다시 말해 '관계'란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쌍 연구를 통해서 서로가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를 쌍으로 보고 접근한 연구들은 실제로 많지 않다. 이숙현·손승영(1992)의 연구는 시부모와 성인자녀부부를 쌍으로 하여 이들의 교환 관계를 부모 혜택형, 호혜성 낮은 유형, 호혜성 높은 유형, 자녀 혜택형 등 4가지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 동거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서로 주고받는 혜택이 많을수록 서로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부모와 며느리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딸의 관계까지 포괄하고 있어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만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쌍을 연구한 최효일(1998)은 고부 모두 서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서로에 대한 평가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 관계의 유형이나 특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더욱이 외국인 며느리와 시부모에 대해 쌍으로 연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가 양쪽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의 특성은 선행연구들과는 무엇이 다른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2007년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서울경기 지역의 다문화 가족 123가구와 전라남도 지역의 다문화 가족 106가구 등 모두 229가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로 이루어진 쌍이며, 자료수집은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2008년 5월 말부터 10월초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를 위한 가구 선별은 2008년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로,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여성의 가구를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명단을 토대로 시부모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생존해 있는 가구를 선별하였다.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연구 대상자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 복지관, 또는 외국인 관련 시민단체 등 이주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기관에 사전 협조를 구한 뒤 연구자들이 직접 이들 기관을 방문하였다.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중이며 조사에 응하기로 동의한 이주여성에게는 본인과 시부모용 설문지를 배부하여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주여성이 설문지를 잃어버리거나 집안에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이 지역에 배포된 설문지는 50% 미만의 낮은 수거율을 보였다. 전라남도 지역은 고흥군, 무안군, 보성군, 나주군, 목포시의 각 군청과 시청의 사회복지과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이틀간의 교육을 마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생과 석사과정생이 진행하였다. 시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였다. 며느리용 설문지는 각 나라별 언어로 번역하였으며, 공무원들의 도움을 통해 자료수집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면접조사는 1:1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거율은 100%였다. 각 가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응답거부 등에 의해 시부모나 외국인 며느리 중 한 쪽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시부모-외국인 며느리 138쌍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시부모-외국인 며느리 쌍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 두 가지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각자에게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그 외에 관계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측정도구로 시부모의 문화적 유능감과 생활만족도, 며느리의 결혼만족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가 사용되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에게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도 이해도에 무리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전조사를 통해 문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의사소통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의사소통은 Bienvenu(1970)의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MCI) 척도를 수정 보완한 김오남(2006)의 부부 간의 의사소통 척도를 시부모-며느리 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시부모(며느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등의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모두에게 사용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시부모 0.870, 며느리 0.796이었다.

(2) 관계의 질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의 질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의 관계의 질을 측정할 양옥경(2007)의 '가족관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척도'의 하위 영역 중 정서친밀영역과 수용존중영역만을 활용하였으며, 원 척도의 주어진 '우리 가족'을 '나'와 '며느리(시부모)'로 바꾸어 질문하였다. 정서친밀 영역은 '나와 며느리(시부모)는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등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용존중 영역은 '나와 며느리(시부모)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시부모 외국인 며느리 모두에게 사용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시부모 0.962, 며느리 0.957이었다.

(3) 문화적 유능감

시부모의 문화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제결혼한 부부사이의 문화적응 태도를 측정할 장은정(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문화 전달능력 6문항과 다문화수용능력 6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화 전달능력은 '나는 며느리에게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잘 가르쳐 준다' 등의 자신의 문화를 상대에게 알려주고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 및 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다문화수용능력은 '나는 며느리 나라의 생활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등의 상대국가의 문화에 대해 알고자 하는 태도를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0.911이다.

(4) 생활만족도

시부모의 생활만족도는 윤진(1982)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척도는 노인의 감정부문과 경험부문에 대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문항은 '나는 요즘 하늘을 날 것처럼 기분이 좋다' 등의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험문항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흥미롭고 재미있다.' 등의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사용하였다. 생활만족도의 정도는 20개 문항의 점수 합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시부모의 경우 척도의 신뢰계수는 Cronbach's α 는 0.938이었다.

(5) 결혼만족도

외국인 며느리의 결혼만족도는 Roach, Frazier and Bowden(1981)에 의해 개발된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의 문항을 우리 문화실정에 맞게 번역한 노명희와 이숙(1991)의 척도를 수정한 허윤정(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나는 결혼생활에 대해 근심, 걱정이 많은 편이다.'

'남편은 무슨 일이든지 나를 편하게 해주려고 한다.' 등의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뜻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0.900으로 나타났다.

(6) 문화적응 스트레스

외국인 며느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Sandhu와 Asrabadi (1994)가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이승중(1995)이 한국어로 번안한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Sandhu와 Asrabadi (1994)의 척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등을 묻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리커트식 5점 평가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0.918이다.

3) 분석방법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시부모-외국인 며느리 간에 서로 지각하는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시부모-외국인 며느리의 관계유형과 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Robert와 Leonard(1998)에 의하면, 군집 분석은 다양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쌍 연구의 맥락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쌍 연구에서 군집분석은 관계의 전형적인 패턴을 밝혀내거나(이민재, 2001; 최명선·김광웅, 2005), 관계유형별 차이를 밝혀내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 군집분석은 분석 자료를 만족스러운 적합도를 가지는 구조화된 집단으로 구분하는 통계방법으로, 단순히 점수를 중간으로 나누는 절차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eece and Holt, 1993, 전경문·박현주·노태희, 2005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변수들의 점수 분포를 고려하여 비계층적인 분석 방법인 k-means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관계유형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부모와 며느리의 각각의 주요 특성들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인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138쌍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시부모응답자는 시아버지가 18.8%, 시어머니가 81.2%를 차지하였으며, 평균연령은 70.46세였다. 주관적 경제수준

은 보통이다가 50.7%로 가장 많았으며, 주관적 건강수준은 보통이다 이상이 65.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시부모 응답자의 77.5%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었다. 다음으로 외국인 며느리의 평균연령은 28.9세였다. 국가별 출신 비율을 보면 베트남 출신이 3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국 24.8%, 필리핀 15.3% 등의 순이었다. 64.4%의 응답자가 자녀가 있었으며, 학력은 고졸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상도 31.3%를 차지하였다.

〈표 1〉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시부모 특성	성별	남성	26(18.8)
		여성	112(81.2)
	연령	평균	70.46세
	주관적 경제상태	나쁨	10(7.4)
		비교적 나쁨	33(24.3)
		보통	69(50.7)
		비교적 좋음	20(14.7)
		좋음	4(2.9)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22(16.2)
		비교적 나쁨	25(18.4)
		보통	39(28.7)
		비교적 좋음	30(22.1)
		좋음	20(14.7)
	학력	무학	57(42.9)
초졸		46(34.6)	
중졸		12(9.0)	
고졸이상		18(13.5)	
외국인며느리 특성	출신 국가	중국	34(24.8)
		필리핀	21(15.3)
		베트남	54(39.4)
		일본	17(12.4)
		기타	11(8.0)
	자녀 유무	유	87(64.4)
		무	48(35.6)
	학력	초졸이하	14(10.4)
		중졸	18(13.4)
		고졸	60(44.8)
대졸이상		42(31.3)	
연령	평균	28.9세	

2)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 지각 차이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는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의 두 가지 변수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가 지각하는 서로의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의사소통 정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시부모와 며느리 모두 '보통' 수준 정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시부모가 생각하는 며느리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665, p<.01$). 즉, 시부모는 외국인 며느리에 비해 며느리와 의사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시부모는 외국인 며느리에 비해 서로의 '관계의 질'을 더 좋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570, p<.05$). 관계의 질의 첫 번째 하위영역인 정서친밀 영역은 시부모와 며느리의 응답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서로의 인식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번째 하위 영역인 수용존중영역에서는 시부모가 며느리에 비해 관계의 질을 더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570, p<.001$). 결과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가 외국인 며느리에 비해 서로의 관계를 더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시부모-며느리 간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 : t-test

항목	평균(sd)		MD	SD	t	
	시부모	며느리				
의사소통	3.42(.91)	3.15(.98)	0.267	1.178	2.665**	
관계의 질	정서친밀영역	3.30(.99)	3.17(.96)	0.132	1.198	1.296
	수용존중영역	3.76(.87)	3.37(1.05)	0.383	1.247	3.570***
	전체	3.52(.91)	3.26(.96)	0.253	1.157	2.570*

* $p < 0.05$, ** $p < 0.01$, *** $p < 0.001$

3) 군집분석을 통한 시부모-외국인 며느리 관계유형 구분

시부모-외국인 며느리 쌍의 관계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 수준에 기초하여 4개의 군집을 지정하고 k-means 군집 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관계의 일치도나 상호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관계의 유형을 주로 3~4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관계에 대한 부모-자녀의 의견 일치도를 살펴본 Aquilino(1999)의 연구에서는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집단, 부모가 자녀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한 집단, 자녀가 부모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한 집단의 3개의 군집을 지정하였다. 그런가하면, 이여봉·이선이·김현주(2008)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여, 둘 다 높게 나타난 집단, 둘 다 낮게 나타

난 집단,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게 나타난 집단의 4개의 군집을 지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의거해 시부모가 응답한 관계와 외국인 며느리가 응답한 관계의 측정 영역을 각각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구분하여 군집 수를 4개로 지정하였다. 이 때 생성되는 군집유형과 그 분포를 관찰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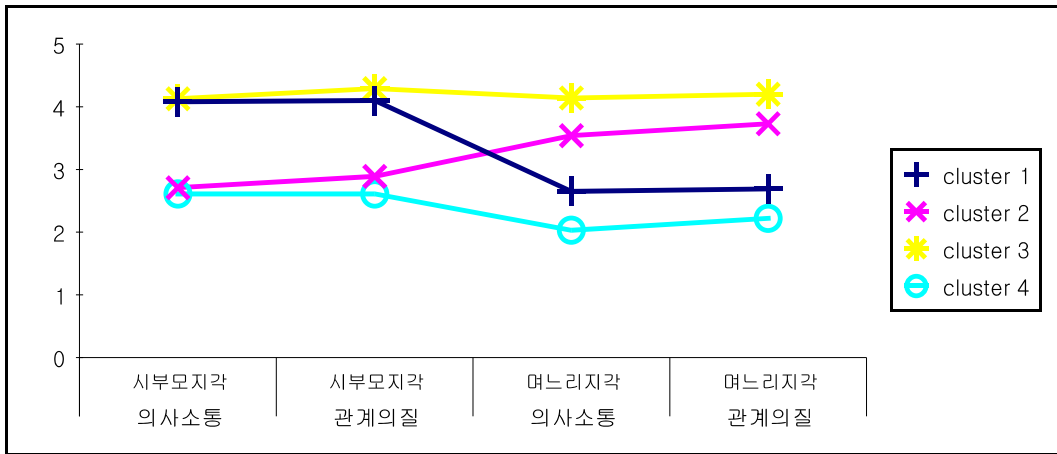
<표 3>에 제시된 변수별 점수를 참고하여 군집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군집 1}은 시부모가 지각하는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 모두 높은 반면, 며느리가 지각하는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이 모두 낮다. 즉, 시부모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지만 며느리는 그렇지 않은 집단이다. {군집 2}는 시부모가 지각하는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 모두 낮은 반면, 며느리가 지각하는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이 모두 높은 집단이다. 군집 1과 반대로 며느리는 시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지만, 시부모는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군집 3}은 시부모와 며느리 모두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 모두 높게 나타나 서로의 관계를 모두 좋게 지각하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군집 4}는 군집 3과 반대로 시부모와 며느리 모두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 모두 낮게 나타나 서로의 관계를 모두 좋지 않게 지각하는 집단이다.

각 군집에 대한 시부모-외국인 며느리 쌍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138쌍 가운데 38쌍(27.5%)이 군집 1로 분류되었고, 39쌍(28.3%)은 군집 2로, 34쌍(24.6%)은 군집 3으로, 27쌍(19.6%)은 군집 4로 분류되었다. 즉, 시부모와 며느리 모두 서로의 관계를 좋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군집(군집4)의 비율이 전체 대비 가장 낮았고, 나머지 군집은 적어도 한 쪽은 서로의 관계를 좋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군집은 1과 2는 전체의 55.8%를 차지해 반수이상은 서로의 관계를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는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관계로 대표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로의 관계에 대해 다르게 인지하는 여러 집단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3> 시부모-외국인 며느리가 지각하는 관계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관계 유형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
		<시부모만 긍정적 지각유형> (n=38)	<며느리만 긍정적 지각유형> (n=39)	<상호 긍정적 지각유형> (n=34)	<상호 부정적 지각유형> (n=27)	
시부모 지각	의사소통	4.08	2.71	4.13	2.61	75.676***
	관계의 질	4.10	2.89	4.29	2.61	72.630***
외국인 며느리 지각	의사소통	2.65	3.54	4.14	2.03	75.586***
	관계의 질	2.69	3.73	4.20	2.22	78.633***

*p < 0.05, **p < 0.01, ***p < 0.001



〈그림 1〉 군집분석 결과

4) 시부모-외국인 며느리 관계유형별 특성 분석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유형(군집)별 주요 특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시부모와 며느리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시부모의 문화적 유능감, 시부모의 생활만족도, 외국인 며느리의 결혼만족도, 외국인 며느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수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시부모-며느리의 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만을 <표 4>에서 정리하였다. 각 군집별 변수들의 특성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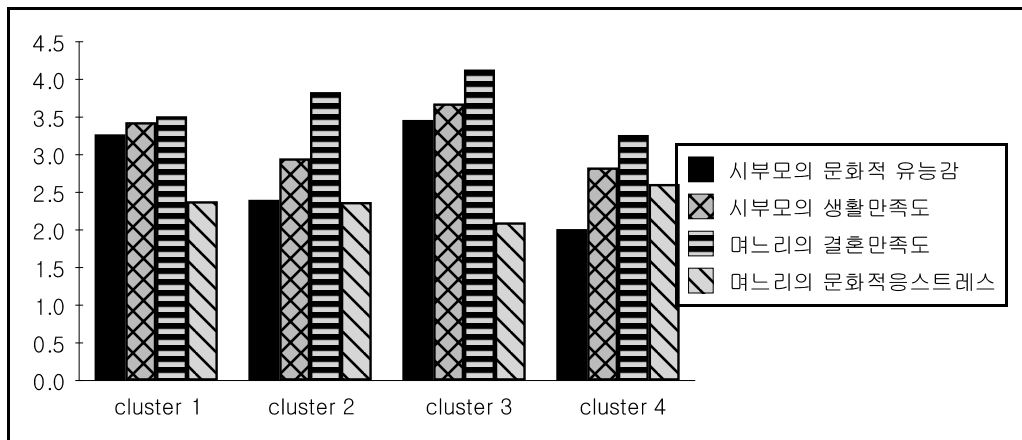
<표 4>에서 보면, 시부모와 며느리의 특성에 따라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 유형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시부모-외국인 며느리 간 관계를 서로 좋게 평가하고 있는 군집3의 경우, 시부모의 문화적인 유능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를 좋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군집2와 군집4의 시부모들의 문화적 유능감이 비교적 낮았다. 이는 문화적 유능감이 높은 시부모들이 며느리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부모의 문화적 유능감이 서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둘째, 시부모가 관계를 좋게 인식하고 있는 군집1과 군집3의 경우 시부모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수준의 관계를 보이는 군집2와 군집4의 경우 시부모의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시부모에게 있어 외국인 며느리와의 관계가 생활만족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족관계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모두 관계를 좋게 지각하고 있는 군집 3의 경우 며느리의 결혼만족도가 다른 관계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며느리가 시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군집 2의 경우도 결혼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남편과의 관계에 시댁가족들과의 관계, 특히 시부모와의 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오남, 2006)와 같이,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며느리의 경우 역시 시부모와의 관계가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척도 상 각 관계유형

(군집)별 며느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관계를 모두 좋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군집4의 경우는 다른 관계유형에 비하여 며느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시부모와 며느리 모두 관계를 좋게 지각하고 있는 군집3의 경우 며느리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낮았다. 이는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문화에 적응하여 생활하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주는 시부모와의 관계가 며느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관계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시부모와의 좋지 않은 관계 그 자체가 며느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연령,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등도 군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의 경우 시부모와 며느리 모두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군집3의 평균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계를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군집4의 평균 연령은 가장 높았고, 주관적 경제 및 건강수준도 다른 군집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각 군집별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주요 특성

			군집 1 <시부모만 긍정적 지각유형> (n=38)	군집2 <며느리만 긍정적 지각유형> (n=39)	군집3 <상호 긍정적 지각유형> (n=34)	군집4 <상호 부정적 지각유형> (n=27)	F
시부모 특성	연령	평균	69.70세	71.32세	67.94세	73.58세	3.369*
	주관적 경제수준	평균	3.05	2.85	2.91	2.33	4.004**
	주관적 건강수준	평균	3.42	2.79	3.21	2.52	3.306*
	문화적 유능감	평균	3.27	2.40	3.46	2.01	31.178***
	생활 만족도	평균	3.43	2.95	3.68	2.83	10.047***
며느리 특성	연령	평균	29세	27.8세	27.9세	32.7세	3.113*
	결혼 만족도	평균	3.51	3.83	4.13	3.26	9.614***
	문화적응 스트레스	평균	2.38	2.37	2.10	2.61	3.987**

*p < 0.05, **p < 0.01, ***p < 0.001



〈그림 2〉 각 군집별 주요 특성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쌍을 대상으로 하여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각된 일치도에 근거하여 관계유형을 분류한 후, 각 관계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와 사회복지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를 쌍으로 조사하였을 때 서로가 인식하는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은 두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모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외국인 며느리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며느리가 대상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각각의 평가를 기초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결과(Fischer, 1983; Marotz-Baden and Cowanm, 1987; Bond and Harvey, 1991; Aquilino, 1999)를 확인해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일반가정에 대한 연구결과와 같이 다문화 가정에서도 시부모는 며느리에 비해 서로의 관계를 좋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점은 관계의 질 하위영역중 시부모들은 정서와 친밀보다는 수용과 존중영역에서 외국인 며느리에 비해 관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부모들이 아직까지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기 보다는 이들을 수용하고 존중하려는 입장을 외국인 며느리에 비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외국인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시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두 집단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쌍의 지각된 일치도에 근거하여 구분된 관계유형은, '시부모는 관계를 좋게 지각하나 며느리는 그렇지 않은 집단(군집1) 27.5%', '며느리는 관계를 좋게 지각하나 시부모는 그렇지 않은 집단(군집2) 28.3%', '둘 다 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집단(군집3)' 24.6%, '둘 다 관계를 좋지 않게 지각하는 집단(군집4) 19.6%'로 분류되었다. 군집의 비율로 보았을 때 서로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군집의 비율은 19.6%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는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관계로 대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의 외국인 며느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에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강했지만(이기숙, 1977; 홍숙자 외, 1996; 성명옥·이혜자, 2002; 이혜자, 2003; 김밀양, 2004; Pans, 1998; Turner et al, 2006; Rittenour and Soliz, 2009), 실제로 부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와 같이 시부모와 며느리를 쌍으로 연구하였을 때 이들의 관계는 부정적이거나 갈등적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을 포함해 여러 집단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이들의 관계를 동일한 특성을 지닌 하나의 관계로만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해 주었다.

셋째, 각 관계유형(군집)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부모와 며느리의 주요 특성을 이용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부모의 높은 문화적 유능감이 서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시부모와 관계가 좋은 며느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겪는다는 새로운 발견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부모의 문화적 유능감이 강조되며, 또한 시부모와의 좋은 관계가 며느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다른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 입양해 온 자녀가 긍정적인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차별적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양부모의 문화적 유능감을 강조한 바 있다(Vonk, 2001). 그러나, 외국인 며느리를 포함한 다문화 가정에서 문화적 유능감에 대해 경험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시부모의 문화적 유능감 향상이 필요함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사회복지적 정책이나 실천의 방향도 외국인 여성에 대한 한국 사회에의 동화와 적응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즉 문화적 유능감을 향상시키는 가족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부모의 입장에서 외국인 며느리와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며느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는 서로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관계임이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 시부모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군집에서 시부모의 생활만족도도 높으며, 시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군집에서 외국인 며느리의 결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 간 관계를 좋게 지각하고 있는 관계유형(군집3)의 경우 시부모의 생활만족도와 며느리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가 시부모의 일상생활과 며느리의 부부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가족관계임을 밝혀주는 결과로, 시부모와 며느리 각각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들(김오남, 2006; Mancini and Blieszer, 1989)과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적 실천에서 직접적으로 며느리의 결혼만족도 향상이나 시부모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부모는 며느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관계를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능하도록 개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발견과 기존연구의 확인이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 전라도로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역의 모습이라고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표본추출도 자료수집이 가능한 기관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시부와 시모의 구분없이 시부모를 하나의 대상으로 다루었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덜 하고 관여도도 낮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부와 시모를 구분하여 관계를 살펴봐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시부모가 또는 외국인 며느리가 겪고 있는 서로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하겠다. 또한, 외국인 며느리 개인의 나라별, 문화별 차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특성이 시부모와의 관계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 구치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319-360.
- 김경신. 2006. 『결혼이민자가족의 수용과 정착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남국. 2005. “다문화 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5(4): 97-121.
- 김민정. 2007. “한국 가족의 변화와 지방 사회의 필리핀 아내”. 『페미니즘연구』 7(2): 213-248.
- 김민정 · 유명기 · 이혜경 · 정기성.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밀양. 2004. “고부관계 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73-187.
- 김석란. 2008. “한일국제결혼을 통해 본 문화적 갈등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 35: 287-299.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연수. 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217-252.
- 김이선. 2007. 『한국 사회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소통 현실과 전망』. 다문화가족센터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집.
- 김태현 · 한희선. 1990.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시모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0: 87-104.
- 노명희 · 이숙. 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9(4): 181-206.
- 박소영 · 박태영. 2008. “며느리들의 시어머니와의 관계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4): 55-71.
- 박정숙 · 박옥임 · 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1-12.
- 성명옥 · 이해자. 2002. “시어머니가 지각하는 고부갈등이 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18: 185-206.
- 송지은 · Marks, N. F. 2006.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국중단자료의 분석”. 『한국노년학』 26(3): 581-599.
- 송현애 · 이정덕. 1995. “시부모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부양자원과 부양스트레스 인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15-123.
- 양옥경. 2007. 『다문화가족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PR-27.

- 윤진. 1982.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 제작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초록』 26-30.
- 윤형숙. 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이기숙. 1977. “고부관계에 관한 연구 - 동거론과 별거론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15(2): 47-56.
- 이민재. 2001. “성인 전기의 사랑 유형과 자아 존중감, 신뢰감 및 관계 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숙현·손승영. 1992. “확대가족에서의 세대간 동거만족도 비교”. 『한국사회학』 26(2): 2121-2144.
-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여봉·이선이·김현주. 2008. “청소년자녀와 부모 간 긍정적·갈등적 상호작용 - 국가 및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127-160.
- 이정연. 1990. “며느리가 인지한 고부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35-146.
- 이정연. 2002. “고부관계개선을 위한 긍정적 사고훈련 프로그램의 적용”.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117-136.
- 이혜경. 2009. “외국 며느리를 둔 농촌 시어머니의 수용경험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이혜자. 2003. “시모의 고부갈등 유형화와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9: 31-59.
- 장온정. 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전경문·박현주·노태희. 2005. “군집 분석을 이용한 학생들의 성취 목적 양식 조사”. 『한국교육학 교육학회지』 25(3): 321-326.
- 정순돌·이현주. 2009. 『외국인 며느리를 둔 한국시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서울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발표 자료집. 189-195.
- 전라남도. 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 조병은·신화용. 1992.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12(2): 83-93.
- 조한숙. 2009. “농촌노인과 외국인며느리의 고부관계만족도 및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천영희·고재홍. 2005. “모-청소년 자녀의 자존감, 성격특성 및 의사소통 방식이 상대방과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 APIM 모형의 적용”. 『청소년 상담연구』 13(2): 47-60.
- 최명선·김광웅. 2005. “아동과 치료자간 치료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297-316.
- 최효일. 1998. “고부갈등완화를 위한 탐색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 64-73.
- 통계청. 2008. “연령 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혼인·이혼 통계 결과, 2008.” <http://www.nso.go.kr>.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허윤정. 1996.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의사소통과 갈등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홍달아기·채옥희. 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지』 15(5): 729-741.
- 홍숙자·유은희·전길양. 1996. "중년며느리를 위한 고부관계 향상 교육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4(5): 293-305.
- Aquilino, S. W. 1999. "Two views of one relationship: comparing parents' and young adult children's reports of the quality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4): 858-870.
- Bienvenu, M. J. 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26-31.
- Bond, J. B. and C. D. Harvey. 1991. "Ethnicity and intergenerational perceptions of family solida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3(1): 33-44.
- Bryant, C. M., R. D. Conger, and J. M. Meehan. 2001. "The influence of in-laws on change in marital succ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 614-626.
- Clarke, E. J., M. Preston., J. Raskin, and V. L. Bengston. 1999. "Types of conflicts and tensions between older parents and adult children". *The Gerontologist* 39(3): 261-270.
- Fischer, L. R. 1983. "Mothers and mothers-in la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87-192.
- Gudykunst, W. B. and M. R. Hammer. 1988. *Strangers and hosts: An uncertainty reduction based theory of intercultural adaptation*.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 Hovey, J. D. 2000.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entral American immigrant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0(2): 125-139.
- Kim, M. H. 1996. "Changing Relationships between Daughters-in-Law and Mothers-in-Law in Urban South Korea". *Anthropological Quarterly* 69(4): 179-192.
- Luke, C. 2003. "Glocal mobilities: crafting identities in interracial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6(4): 379-401.
- Mancini, J. and R. Blieszer. 1989.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 Research Themes in intergeneration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275-290.
- Marotz-Baden, R. and D. Cowan. 1987. "Mother in law and daughter in law : The effects of proximity on conflict and stress". *Family Relations* 36(4): 385-390.
- Meece, J. L. and K. Holt. 1993. "A pattern analysis of students' achievement goal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4): 582-590.
- Merril, D. M. 1993. "Daughter in law as caregivers to the elderly". *Research on Aging* 15: 70-91.
- Morr-Serewicz, M. C. 2008. "Toward a Triangular Theory of the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s of In-Laws: Theoretical Proposal and Social Relations Analysis of Relational Satisfaction and Private Disclosure in In-Law Triads".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8(4): 264-292.
- Pans, A. E. M. J. 1998. "The mother in law r boo". *Ethnology* 37: 72-98.
- Parker, J. G. and S. R. Ashe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eter-Davis, N. D., M. S. Moss, and R. A. Pruchno. 1999. "Children in law in caregiving families". *The Gerontologist* 39(1): 66-75.
- Quinn, W. H. 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7-73.

- Rastogi, M. and K. S. Wampler. 1999. "Adult daughters' perceptions of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a cross comparison". *Family Relations* 48(3): 327-336.
- Rittenour, C. and J. Soliz. 2009. "Communicative and relational dimensions of shared family identity and relational intentions in mother in law/daughter in law relationship: developing a conceptual model for mother in law/daughter in law research".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73(1): 67-90.
- Roach, A. J., L. P. Frazier, and S. R. Bowden.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3): 537-546.
- Robert, L. J. and K. E. Leonard. 1998. "An Empirical Typology of Drinking Partnerships and Their Relationship to Marital Functioning and Drinking Consequenc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515-526.
- Roer-Strier, D. and D. Ezra. 2006. "Intermarriage between western women and Palestinian men: Multidirectional adaptation proc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8(1): 41-54.
- Rossi, A. S. and P. H. Rossi.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NY: Aldine de Gruyter.
- Sandhu, D. and B. Asrabadi.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Taylor, R. J., L. M. Chatters, and V. M. Mays. 1988. "Parents, children, siblings, in-laws, and non kin as sources of emergency assistance to black Americans". *Family Relations* 37: 298-304.
- Tein, J., M. Roosa, and M. Michael. 1994. "Agreement between parent and child reports of parental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341-355.
- Turner, M. J., R. C. Young, and K. I. Black. 2006. "Daughter in law and mother in law seeking their place within the seekin: A qualitative study of differing viewpoint". *Family relations* 55: 588-600.
- Umberson, D. 1992.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both gene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3): 664-675.
- Vonk, M. E. 2001. "Cultural competence for transracial adoptive parents". *Social work* 46(3): 246-255.
- Ward, R. A. 1985. "Informal networks and well-being in later life: A research agenda". *Gerontologist* 25: 55-81.
- White, L. K. and S. J. Rodgers. 1997. "Strong support but uneasy relationship: coresidence and adult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62-76.

Relationship Patterns between Parents-in-law and Foreign Daughters-in-law based on the Perceived Agreement of Quality of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Chung, Soon-Dool

(Ewha Womans University)

Park, Hyun-Ju

(Doctoral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Oh, Bo-Ram

(Master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difference and patterns of relationship between parents-in-law and foreign daughters-in-law based on the perceived agreement of quality of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A total of 138 dyad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in-law and foreign daughters-in-law from Seoul, Kyunggi-Do, and Cholla-Do were analyzed.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parents-in-law and foreign daughters-in-law perceived their relationship as an average and above and parents-in-law perceived their relationship more positively than daughters-in-law. A total of 4 clusters were categorized by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agreement of perceived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parents-in-law perceived their relationship positively but daughters-in-law were not(cluster 1), daughters-in-law perceived their relationship positively but parents-in-law were not(cluster 2), both parents-in-law and daughters-in-law perceived their relationship positively(cluster 3), both parents-in-law and daughters-in-law perceived their relationship negatively(cluster 4). In order to observe the characteristics of relationship patterns, ANOVA were performed. Cultural competency of parents-in-law appeared to relate to their relationship with daughters-in-law. Acculturative stress of daughters-in-law who have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in-law was low and marital satisfaction of them was high. In addition, life satisfaction of parents-in-law who have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daughters-in-law was high. Implication of this study was discussed.

Key words: parents-in-law, foreign daughters-in-law, communication, quality of relationship, pattern of relationship, cluster analysis, cultural competency

[논문 접수일: 09. 09. 18, 심사일: 09. 09. 28, 게재 확정일: 09. 10. 15]